

성서 신학, 더 이상 조직 신학의 토대가 아닌가?

-볼프의 성서의 신학적 해석-

김동수*

1. 들어가는 말

학문이 전문화되면서 학문 간에 불통이 현대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서로 다른 학문들 사이는 물론, 같은 학문의 분과 사이에도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신학으로 좁혀보자면 오랫동안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 사이에는 차일즈(B. S. Childs)가 “철의 장막”이라고 부른 것이 존재해 왔다.¹⁾ 가블러(Johann Philipp Gabler)가 1787년에 알트도르프 대학 교수 취임 연설에서 교회가 믿는 교리를 연구하는 교의 신학과 성서 본문 본래의 의도를 캐내는 성서 신학을 나눈 이후 조직 신학과 성서 신학은 각자의 영역에서 발달해 왔고 상호 교류가 별로 없었다.²⁾ 성서학자들은 성서 본문을 역사적으로 연구할 뿐 신학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조직 신학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해가는 성서 신학의 방법론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그것에 근거해서 조직 신학을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보면 위와 같은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의

* 평택대 신학과 교수, 신약학

1) B. S. Child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Minneapolis: Fortress, 1992), xiv.

2) Joel B. Green, “Scripture and Theology: Uniting the Two So Long Divided,” Joel B. Green and Max Turner, eds., *Between Two Horizons: Spanning New Testament Studies &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0), 1.

분리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교부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는 흔히 곧 성서 주석가와 성서 해석자로 여겨졌다. 성서학이 성서학자의 전유물이 된 것은 가블러 이후이다. 또 일부 조직 신학자들이 성서와 상관없이 신학을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이다. 물론, 이러한 조류에서도 성서학을 바탕으로 신학을 전개하는 조직 신학자들도 있었고, 성서 신학을 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성서 신학자들과 조직 신학자들 양 진영에서 모두 양 분야의 간격을 메우려는 작업을 시작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서 본문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로만 자신들이 자리매김 되는 것에 불편해 했다. 성서의 진리는 성서 신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러한 작업을 전개한 것이다.³⁾ 또한 조직 신학자들도 성서학에 근거하지 않는 조직 신학의 공허함을 느끼고, 성서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서에 근거한 조직 신학을 펼치기 시작했다.⁴⁾

본 논문의 목적은 성서학에 근거한 조직 신학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M. Volf)의 방법론을 비평적으로 소개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책에서 “신학적 성경읽기”라고 지칭한 것에서 밝힌 것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⁵⁾ 이러한 과업의 의의는 최근에 일어난 성서학과 조직 신학의 간극을 좁혀보려는 한 신학자의 시도가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앞으로의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을 연결하는 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줄 수 있을

3) 이런 학자들로 김창선은 대표적으로 차일즈(B. S. Childs)와 휘브너(Hans Hüber), 슈틀마터(Peter Stuhlmacher), 튀징(Wilhelm Thüsing)을 들고 있다. 김창선, 『21세기 신약성서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33-42를 보라.

4) E. g., 케빈 밴후저, “서론: 성경의 신학적 해석이란 무엇인가?” 『신약의 신학적 이해』 (서울: CLC, 2011), 19-36; David Ford, *Christian Wisdom: Desiring God and Learning in Love* (Cambridge: CUP, 2007); David Kelsey, *Eccentric Existence: A Theological Anthrop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9); Michael Welker, *God the Spirit*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4).

5) 미로슬라브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볼프의 주장을 요약 소개하고,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2. 볼프의 성서와 신학 다리 놓기 방법: 신학적 성경 읽기

볼프가 시도한 것은 한 마디로 “신학적 성경 읽기”이다. 그가 밝힌 것처럼 이것은 성서학자가 하는 단순한 주석 작업도 아니요, 전통적인 교리적 성경 읽기도 아니다. 그는 성서 본문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에서 필자는 볼프가 어떤 근거 하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책에서 말한 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2.1. 신학에서 성서의 중요성

신약 성서 형성 이후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는 곧 성서 해석자였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것이, 볼프에 의하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한편으로는 성서를 이상한 낯선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에게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어려운 것”이 되었다.⁶⁾ 하지만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을 잃는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칸트(I. Kant)가 학문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한계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고 주창한 이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신학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의 학자로 쉴라이어마허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20세기 초반부에서는 바르트(K.

6)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13.

Barth)와 본회퍼에 의해 성경은 신학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조직 신학자들을 더는 성경을 자신들의 신학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성이 생겨났다. 이 시대를 설명하는 것을 볼프의 말을 그대로 들어보자.

놀랄만한 짧은 기간에 조직 신학자들은 일찍이 칸트에게 받은 자극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하여’ 실질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비슷한 시기에 계몽주의 당시에 시작된 발달 양상이 절정에 올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자신을 주로 역사가로 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조직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조직 신학자들은 성경을, 역사가로 변한 성경학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성경학자들은 신학의 짐을 조직 신학자들에게 떠넘겼다. 그 결과는? 학문적인 신학에 관한, 성경은 머나먼 과거에 갇힌 나머지, 현재에는 실종하고 말았다.⁷⁾

그렇다면 조직 신학에서 성경의 실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볼프는 이것은 “마치 자기가 앉아 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꼴”이라고 한다.⁸⁾ “그 어떤 유형의 기독교 신학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신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죽음에 넘겨줄 것”이라고 볼프는 힘주어 말한다.⁹⁾ 이어서 그는 “성경을 치워 보라. 그러면 조만간에 교회를 ‘교회답지 못한’ 공동체로 만들게 되리라.”고 경고한다.¹⁰⁾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20년간 새로운 조류가 발생했다.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다시 신학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조직 신학자들은 성경 본문과 다시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¹¹⁾ 볼프는 이러한 새 조류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7) Ibid., 16-17.

8) Ibid., 20.

9) Ibid., 21.

10) Ibid., 19.

11) Ibid., 22.

시도한다.¹²⁾ 그동안 여러 저서와 논문을 통해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것은 주석과 해석이 아닌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¹³⁾

2.2. 성경 해석의 틀

볼프는 자신의 신학적 방법론으로 삼는 성서 해석의 틀을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2.2.1. 그 당시, 거기에서

이 원리는 신학적 성경 해석 원리의 기본이 된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록된 본래의 자리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쓸 때의 본래 저자와 독자와 상황이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읽는 것이 진부한 것 같지만 성경 해석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는 고전적 의미로 주석(exegesis)이라고 한다.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이른바 what it meant)를 추구하는 것이다.¹⁴⁾ 이렇게 저자가 본문에서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오랫동안 사용해 온 역사 비평적 방법이 있는데, 볼프는 그 방법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세속적 성향을 버려야만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세속적인 인과관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관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볼프는 역설한다.¹⁵⁾

12) Ibid., 10.

13) Ibid., 11.

14) 하지만 볼프는 성서를 단순히 역사 문서로만 읽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이런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Ibid., 25)를 밝혀내는 것이 신학적 성서 해석이라고 한다.

2.2.2. 지금, 여기에서

이 원리는 성경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다. 성경이 오늘을 위한 책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이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볼프에 의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고전 텍스트이며 동시에 거룩한 책이라는 것에 있다.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매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¹⁶⁾ 성경을 현재의 문서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실을 오늘에 적용시키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창 1:26)나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할 때(5:14), 독자는 방관자로만 있을 수 없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독자인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의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성경은 오늘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주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⁷⁾

2.2.3. 통일성과 다양성

볼프가 주목하는 성경의 중요한 성격은 내용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다. 먼저, 그는 성서의 통일성에 집중한다. 성경은 같은 색깔의 책이 아니지만 다양한 책이 모여 통일성을 이루는 책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15) Ibid., 25.

16) Ibid., 29.

17) Ibid., 32.

하나의 핵심 주제로 모아진 총서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록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독립적으로 말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신구약 성경은-비록 구약에서는 약간은 불분명하지만-연여져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볼프가 힘주어서 말하는 것은 성서의 다양성이다. 그는 성경 내용의 다양성을 “다성(多聲) 음악(조화롭지 않은 면과 조화로운 면을 모두 지닌)”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성경의 강점이 지 약점이 아니다”라고 한다.¹⁸⁾ 하지만 볼프는 건드리(Robert H. Gundry)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통일된 조직 신학을 낳는) 초(超)역사적인 포괄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 내적인 타당성을 위해 집필되었다”고 말한다.¹⁹⁾ 즉, 성경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꼭 들어맞는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2.2.4. 본문의 다의성(多意性)과 의미

볼프는 성경은 다양성과 함께 한 성경 본문이 다의성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러 학자들과 함께 그는 성경 한 본문에 복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성경에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변하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독자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한 본문의 의미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본문과 의미의 관계에 대한 숙고가

18) Ibid., 34-35.

19) Robert H. Gundry, “Hermeneutic Liberty, Theological Diversity, and Historical Occasionalism,” *The Old is Better; New Testament Essays in Support of Traditional Interpretation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7;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chapter 1. 각주 52(p. 247)에서 재인용.

필요하게 된다. 볼프는 본문(text)을 “기호화된 의미를 지닌 사회적 관계”로 취급한다.²⁰⁾ 그렇게 되면 독자는 본문에서 억지로 의미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되고 “기호화된 의미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을 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²¹⁾ 어떤 사람이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그 편지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흥미보다도 그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그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처소요,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유익되는 관심보다도 본문에 나타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다른 독자들에게 실제 쓴 글인 만큼 신자는 “그 저자들의 관심사와 목적을 발견하려는 목표를 품고 성경을 읽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²²⁾ 이런 방식으로 성경 본문의 다의성은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

2.2.5. 자세

성경 본문은 강자들이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법이 이른바 “의심의 해석학”이다. 그런데 이 방식의 결국은 성경은 거룩하고 유익한 책이기보다는 비열하고 무익한 책이라고 보게 되어 성경을 버리게 된다. 볼프가 제안하는 것은 “존경의 해석학”이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거룩한 책이라는 전제 하에 성경 본문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을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또 독자에게서 비판 의식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볼프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20) Ibid., 40.

21) Ibid., 40.

22) Ibid., 43.

방어한다. 첫째, “‘존경’과 ‘수용적 태도’는 비판적 판단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비판적 판단은 그 양자를 동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²³⁾ 둘째, 이러한 존경과 수용적 태도는 신앙 공동체가 더 적극적으로 성서를 읽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용과 존경의 태도는 “능동적”으로 읽는 행위와 독자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읽도록 인도한다는 것이다.²⁴⁾

2.2.6. 기독교의 성경과 다른 종교들

마지막으로 볼프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고도 성경을 읽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며,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여러 종교적 배경의 사람들이 타 종교의 경전을 비교하여 읽는 프로젝트에서 비생산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생산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은 타인의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전통의 사람들의 경전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해석의 본질을 더 알게 되고, 때로는 오히려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 동료 종교인들에게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볼프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3. 볼프의 방법론 평가

조엘 그린(Joel B. Green)은 성서학과 조직 신학 사이에 있는 “철의 장막”을 뛰어 넘으려는 학자들의 시도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1) 수입과 수출 모델, (2) 순수한 간학문 모델, (3) 보다 유기체적인

23) Ibid., 45.

24) Ibid., 47.

간학문 모델. 첫 번째 모델은 성서학자와 조직 신학자가 서로의 방법론과 연구 결과물을 단순히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방의 방법론과 연구 결과물의 정황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다.²⁵⁾ 두 번째 모델은 보다 순수한 간학문적 방법인데, 각 전문 분야의 학도가 타 분야의 방법을 습득하여 자신의 것과 다른 것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물이 방법론적으로 양 분야에 다 부합하는 것이다.²⁶⁾ 세 번째 모델은 앞의 모델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성서학과 조직 신학의 본질을 재 개념화하여 하나의 신학적 해석학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성서로부터 자신의 신학을 위한 단순히 자료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성서 특정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저자의 정황과 신학을 파고들어 그가 그의 정황에서 고민하며 제시한 신학을 오늘의 정황과 실천을 염두에 두고 탐구해 내는 것이다. 연구자가 단순히 제삼자적으로 본문을 연구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저자를 따라가서 그의 상황에 따른 신학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재 교회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황에서 접촉점을 찾아내어 기꺼이 그 신학의 요청에 참여자요, 실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²⁷⁾

그런이 제시한 모델로 볼 때, 볼프는 위 모델 중 세 번째 모델로 성서학과 신학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그는 성서학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신의 신학을 건축하는 사람도 아니요(첫 번째 모델), 또한 두 분야의 방법을 철저히 공부해서 양자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도 아니다(두 번째

25) 그린은 이러한 방법의 전형적인 학자로 차일즈(B. S. Childs)를 든다.

26) 그린은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한 학자들로 슈바르츠(Hans Schwarz)와 페리스(Stephen Farris)와 헤이스(Richard B. Hays)를 예로 든다. Hans Schwarz, *Christ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Stephen Farris, *Preaching That Matters: The Bible and Our Lives* (Louisville: Westminster, 1998); Richard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Community, Cross, New Creation: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 and Collins, 1996).

27) Green, "Scripture and Theology," 38-42.

모델). 볼프는 본문과 정황에 따른 저자의 신학을 밝혀내어, 오늘날의 상황과 연결점을 찾아내고 연구자가 이에 실천자로서 참여하는 신학을 생산해 내고 있다. 볼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저술에서 다룬 네 가지 주제는 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그의 “신학적 성경 읽기”의 결과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은 그의 저술 곳곳에 나타나 있다.²⁸⁾

3. 볼프의 신학하기: 성서의 신학적 해석

볼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책에서 네 가지 주제로 성서의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그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교회와 문화를 다루는데 여기에 나타난 견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세계에 대한 온건한 차별성이라고 한다. 둘째, 그는 요한일서 4:7-12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 사랑의 성격을 이슬람과의 대화를 정황으로 전개하고 있다. 셋째, 그는 하나님과 돈의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마태복음 6:24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과 경제 성장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요한복음의 이원론과 현대의 다원주의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볼프의 성서의 신학적 해석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밝혀내 보려고 한다.

3.1. 볼프의 신학적 해석의 실제

조직 신학자인 볼프의 관심사는 성서 본문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이

28) 미로슬라브 볼프, 『베훤과 용서』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idem,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idem,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idem, *The End of Memory: Remembering Rightly in a Violent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다. 그는 성서를 해석하면서 현대세계의 문제와 질문을 지속적으로 가져온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문화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의 돈에 대한 무한한 열망은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성서적 근거와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삼일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교회의 본질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 이웃을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과 포용할 수 있을까? 볼프는 우리 시대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질문을 성서에 던지는 것이다. 그는 그에 관한 가장 적절한 성서 구절이나 성서의 책을 찾는다. 그래서 그 본문과 책에서 저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씌름했고, 그 해답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질문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를 씌름한다. 그가 위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저서와 논문에서 대담으로 제시한 것은 성서의 주석과 신학의 해석의 내용과 질에 의해서 놀라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고자 씌름한 의지에 의해서도 깊은 깨달음을 준다.

여기에서 볼프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원론과 현대의 다원주의다. 얼핏 양 주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요한이 제시하는 이원론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의 다원주의와는 반대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이원론을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고 현대 사회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사상이라고까지 흔히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볼프는 이러한 이해가 요한의 이원론 사상에 대한 오해라고 본다. 요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로 이원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가 제시하는 이원론은 다원 사회를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원한다고 한다. 요한의 이원론에는 대립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대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볼프는 우고 비앙키(Ugo Bianchi)로부터 이원론에 대한 정의를

빌려온다. 비양기에 의하면 선과 악과 같은 두 개의 반립관계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원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원성이 “세계와 사람을 존재케 할 책임을 진, 서로 상반된 존재론적 원리들”²⁹⁾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경상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영과 육을 말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지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볼프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위의 의미로 볼 때 이원적이지 않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여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고, 인간의 타락으로 어둠이 생겼으며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여러 대립적인 상태를 해소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는 성육신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고자 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요한복음은 그 신학이 이원론적이지 않다.

위에서 우리는 요한 신학이 이원론적이지 않지만 대립적인 이원성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요한의 이원성은 다원주의와 어떤 관계인가? 볼프는 다원주의를 “사회적 현실로서의 다원주의”와 “철학적 입장으로서의 다원주의”와 “정치 프로젝트로서의 다원주의” 등 세 종류로 나누고, 요한이 각각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다. 첫째, 정치 프로젝트로서의 다원주의는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다원주의 사회에 가장 어울리는 정치 제도들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다.³⁰⁾ 볼프는 요한의 이원성은 이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다원주의는 요한 공동체와 같은 소수파를 허용했을 것이고, 요한 공동체의 특성으로 보아 요한 공동체도 이러한 체제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9) Ugo Bianchi, “Dualism,” *Encyclopedia of Religion*, 4, Mircea Eliade, ed. (N. Y.: Macmillan, 1987), 506.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126에서 재인용.

30)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130.

둘째, 철학적 입장으로서의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회의주의, 혼합주의, 무관심한 상대주의, 상황주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한의 이원성은 이런 다원주의와 반대된다고 한다. 요한은 선과 악의 대립을 긍정하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지, 그 자체를 그냥 놓아두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볼프가 말하는 사회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란 한 문화로 다른 문화를 평가해야 한다거나 문화 간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세계에 존재하는 현실로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뜻한다.”³¹⁾ 또 여기서 문화적 다양성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볼프는 이러한 사회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에 대해서 요한의 이원성은 이것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한다. 요한복음 1:3에서 세상이 모두 말씀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다원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다. 요한은 다원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원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³²⁾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요한복음에 묘사된 “유대인들”과 예수의 대립적 관계다. 예수는 그들을 심지어 마귀로부터 난 자라고까지 부른다(8:44).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현상으로서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시도에 뒤따라 온 것이고,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기보다는 유대인 당국자들을 지칭한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지에 포함된 자들이며(3:16), 예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를 충분히 용인하는 것이 된다.

볼프는 요한이 흔히 말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동등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종교 다원주의를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타

31) Ibid., 136.

32) Ibid., 138.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에 반기를 드는 배타주의일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요한의 태도가 ‘문젯거리’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타성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준다. 이것에 반대된 포용주의도 사실은 새로운 종교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 그것 자체도 사실상 배타주의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배타주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다른 종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한의 배타주의는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첫째, 유대교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묘사는 주로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해당-“요한의 대립적 이원성은 종교적 타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연마되는 게 아니라 타자성이 그 공동체의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그런 공동체적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³³⁾ 둘째, 요한의 이원성이 요한을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섹트’였기 때문이라고 흔히 주장하는데, 요한에게 흑과 백 색깔의 사람들만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셋째, 많은 학자들이 요한이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외부인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볼프는 요한이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요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경원시하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다. 넷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회색 지대의 사람들, 예컨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6:60-66)과 니고데모(3:2; 7:53; 19:39)와 같은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요한복음에서 모든 사람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섹트와는 다르다고 한다. 다섯째, 요한 공동체에는 섹트적인 단체에 그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반드시 존재하는 “도덕법에 대한 강조와 교회 조직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것이다.³⁴⁾ 곧 요한은 흔히 말하는

33) Ibid., 151.

34) Ibid., 161.

섹트보다 다원성에 더 열려 있었으며,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요한의 대립적 이원성들은 정치 프로젝트로서의 다원주의와 사회현실로서의 다원주의 중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³⁵⁾ 곧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회 친화적이고, 다원적 사회에 맞는 복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볼프는 이러한 종류의 이원성은 사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⁶⁾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요한 공동체를 외면하는 교회 외부사람들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들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원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유익하고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3.2. 볼프의 해석에 대한 평가

3.2.1. 성서와 신학을 연결

볼프는 오늘의 사회의 핵심 이슈와 관계하여 요한의 이원론 사상의 핵심을 잘 꿰뚫어보고 있다. 그는 요한의 이원론을 주석적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연구하고 그것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는 두 단계 분리된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성서의 신학적 연구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평 이전 시대의 연구처럼 오늘의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성서 본문을 끌어다 모으는 방식이 아니다. 또 비평 이후 시대에 흔히 주석가들이 과거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만 연구하는 방식도 아니다. 그것은 성서 저자의 신학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다.

오늘의 보수적 기독교의 문제 중 하나는 사회 부적응성이다. 사회를

35) Ibid., 164.

36) Ibid.

교회와 대립된 단체로 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섹트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흔히 인용되는 것이 요한의 이원론 사상에 나타난 세상과 여타 종교에 대한 태도다. 하지만 볼프가 잘 밝혀낸 대로 이러한 태도는 요한의 이원론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요한은 사회현실로서의 다원주의를 배격하지 않는다. 요한이 처했던 상황을 볼 때 오히려 그는 적대자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성 요한”이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도 쉽게 요한 신학자들은 요한 공동체를 ‘섹트’로 간주해 왔다. 케제만(E. Käsemann)과 같이 요한 공동체를 가현주의와 경계선상에 있는 이단적 단체로 규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나, 트렐취(E. Trölsch)가 말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섹트’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와 밖의 세계와 여타 기독교 공동체와 관계해서 그 신학과 태도가 ‘섹트적’이었다는 것이다. 요한 신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견해를 따랐지만 최근에 여러 요한 학자들은 이 견해를 반박했다.³⁷⁾ 볼프는 요한의 이원론이 섹트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현대의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 과학의 이론을 빌어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볼프의 이와 같은 신학하기는 그동안 철의 장막으로 여겨졌던 성서학과 조직 신학을 연결하고 상호 소통케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특별히 볼프의 공헌 중 하나는 이러한 연결을 흔히 하는 대로 ‘성서 주석-성서 신학-조직 신학’의 삼 단계를 단절되게 연결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신학적 성서 읽기를 제안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그의 신학하기를 보면 모두 이런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7) 이에 관한 논의로는 줄고를 보라. 김동수, “정통과 이단에 대한 성서적 이해: 요한공동체는 과연 이단적이었나?,” 「성경신학논총」 2 (2005), 307-321.

3.2.2. 신학과 윤리를 연결

또 한 가지 볼프의 중요한 공헌은 그는 실천과 상관없는 공허한 이론만을 위한 신학을 하지 않고 신학과 윤리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신학에는 자신의 실존적 경험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 사랑과 용서의 문제를 다룬 『베퓌과 용서』에서는 그 자신이 겪은 용서할 수 없는 실존적 경험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용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가 『배제와 포용』을 쓴 것은 크로아티아인으로서 세르비아인들에게 당한 엄청난 인종 살해의 상황에서였다. 그는 그 현장에서 배제를 택하지 말고 포용(혹은 포용)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살해당한 동족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성서의 진리 사이에서 투쟁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보면 이렇다.

나는 느슨하고 초연한 태도로 흥미로운 지적 퍼즐을 푸는 데는 관심이 없었으며, 불가능한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시민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는 서재에 들어가기 전에 헌신과 욕망, 저항, 분노, 불확실성을 외투처럼 옷걸이에 걸어 두었다가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다시 집어서 입는 식으로 책을 쓸 수 없었다. 내 동족은 짐승처럼 짓밟히고 있었으며, 나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반응을 생각해 내야만 했다.³⁸⁾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책 중에서 가장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삼위일체와 교회』에서도 사실 그는 공허한 신학을 하지 않았다.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교회는 교제를 핵심으로, 다중심성으로 나가야 한다고

38) 볼프, 『배제와 포용』, 14-15.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일전에 이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평을 한 바 있다.

본서가 질문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볼프는 삼위일체 인격체 간의 존재 양식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 원서의 제목도 “우리[삼위일체 우리]처럼: 삼위일체의 이미지로써의 교회”이다.

...볼프가 이해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은 이른바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지배하는 군주적 삼위일체론이 아니다. 그는 그의 선생 몰트만(J. Moltmann)을 따라 이른바 삼위간의 민주적 삼위일체론이다. 즉, 삼위일체 각 위격은 인격 간에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내재적이다.

볼프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의 신적 인격은 단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다른 신적 인격들을 동시에 담지한다. 그리고 오로지 그 안에 이러한 다른 인격들이 내주하는 것 가운데 그 인격은 진정한 인격이 된다(349).” 즉, 삼위일체는 각 인격이 “융합이나 혼합 없이 상대방 안에 내재하는 것이다(348).”

볼프는 이러한 삼위일체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각 개인은 하나님의 주신 고유한 특질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 내에 있는 개인은 개인의 연합이 아니라 상호 인격을 내재적으로 공유한다. 그래서 몸에 있어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교제 안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293).” 볼프가 여기서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과 교회의 존재 양식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데 있다(마 18:20)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교제를 깨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한 지체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교제를 깨는 것이다. 둘째, 지체가 인격체 간의 상호 내주 없이 독립적 개인의 연합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삼위

일체적 모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혹은 한 직분자 중심이 아니라 다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자는 서로 형제 혹은 친구의 관계로 서로 교제하고 개인의 특질이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상호 내주에 의해 교회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³⁹⁾

볼프는 오늘의 삶의 한가운데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신학이 윤리가 되고, 윤리는 신학에 근거한 것이 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성서의 진리를 밝혀내는 작업이라도 결국은 연구자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는 신학이 될 때, 또 자신이 실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무관하게 제삼자적으로 신학을 하는 것은 신학함의 오랜 관행이기는 하지만, 볼프에 의해 이러한 관행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론과 실천, 곧 신학과 윤리를 하나로 보고 성서를 신학적으로 읽는 신학자다.⁴⁰⁾

4. 나가는 말

본 논문은 현재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 사이에 있는 “철의 장막”은 신학적으로 건전한 상태가 아니며 이 상태는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지난 20년간 성서학자들과 조직 신학자들 양 진영 학자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 조직 신학자인 볼프가 어떻게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을 통전적으로 하나의 해석학을 만들어 사용하는지

39) 김동수, “서평: 미로슬라브 볼프의 『삼위일체와 교회』,” 뉴스미션 (www.newsmission.com) 2012년 8월 11일에 게재.

40) 다음의 글들도 이런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미로슬라브 볼프, “천국에서 함께 살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 『목회와 신학』 176, (2004); idem, “미국 테러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악행 앞에서 화해는 가능한가,” 『목회와 신학』 149, (2001).

그의 이론과 실재를 최근의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결과 그의 방법론은 성서 여기저기에 있는 진리를 조직 신학자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내는 것도 아니요, 또 ‘성서 본문 주석·성서 신학·조직 신학’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는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신학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신학은 성서의 진리를 오늘에 되살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석과 해석과 실천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신학하기는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과 융합은 물론 신학(이론)과 윤리(실천)의 융합도 준다.

이러한 볼프의 성서의 신학적 해석은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을 연결하거나 이것을 하나의 해석 체계로 만드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성서의 진리를 신학화를 통해 오늘의 상황과 삶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신학 내에서의 간학문적 연구의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하기는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 사이에 그동안 있어 왔던 “철의 장막”을 제거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주요어>

성서 신학, 조직 신학, 소통, 간학문적, 볼프.

<Key Words>

biblic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conversation, interdisciplinary, M. Volf.

* 접수일 2013년 3월 28일, 수정일 2013년 4월 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4월 1일

참고문헌

- 김동수, “정통과 이단에 대한 성서적 이해: 요한공동체는 과연 이단적이었나?,” 『성경신학논총』 2 (2005), 307-321.
- 김창선, 『21세기 신약성서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미로슬라브 볼프, “미국 테러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악행 앞에서 화해는 가능한가,” 『목회와 신학』 149 (2001).
- 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표용』, 서울: IVP, 2012.
- 미로슬라브 볼프, 『베풀과 용서』,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 미로슬라브 볼프,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미로슬라브 볼프, “천국에서 함께 살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 『목회와 신학』 176 (2004).
- 미로슬라브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 케빈 밴후저, “서론: 성경의 신학적 해석이란 무엇인가?,” 『신약의 신학적 이해』, 서울: CLC, 2011, 19-36.
- 케빈 밴후저,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서해석학』, 서울: IVP, 2003.
- Farris, Stephen, *Preaching That Matters: The Bible and Our Lives*, Louisville: Westminster, 1998.
- Ford, David, *Christian Wisdom: Desiring God and Learning in Love*, Cambridge: CUP, 2007.
- Green, Joel B., “Scripture and Theology: Uniting the Two So Long Divided,” Joel B. Green and Max Turner, eds., *Between Two Horizons: Spanning New Testament Studies &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0, 23-43.
- Gundry, Robert H., “Hermeneutic Liberty, Theological Diversity, and Historical Occasionalism,” *The Old is Better; New Testament Essays in Support of Traditional Interpretations*,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Hays, Richard B.,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Community, Cross, New Creation: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 and Collins, 1996.

Kelsey, David, *Eccentric Existence: A Theological Anthrop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9.

Schwarz, Hans, *Christ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Turner, Max and Joel B. Green, “New Testament Commentary and Systematic Theology: Strangers or Friends?,” Joel B. Green and Max Turner, eds., *Between Two Horizons: Spanning New Testament Studies &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0, 1-22.

Welker, Michael, *God the Spirit*,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4.

Volf, M., *The End of Memory: Remembering Rightly in a Violent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초록>

성서 신학, 더 이상 조직 신학의 토대가 아닌가?

-볼프의 성서의 신학적 해석-

김동수

(평택대 신학과 교수)

본 논문은 신학 분과에 있어서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에 있는 불통의 문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최근 200여 년에 일어난 일이다. 그 이전에는 신학자는 곧 성서 해석자였고, 성서 주석자는 곧 신학자였다. 그런데 18세기 말 가블러가 성서 신학과 교의 신학을 나눈 다음, 급기야 나중에는 성서와 상관없는 조직 신학, 신학이 없는 성서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철의 장막”을 문제로 본 성서학자들은 성서 신학을 제창했고, 조직 신학자들은 성서적 조직 신학을 외쳤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조직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M. Volf)의 성서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을 분석, 평가한 것이다. 분석 결과 그의 성서적 신학은 성서 여기저기에 있는 진리를 조직 신학자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내는 것도 아니요, 또 ‘성서 본문 주석-성서 신학-조직 신학’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는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신학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신학은 성서의 진리를 오늘의 되살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석과 해석과 실천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신학하기는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과 단절은 물론 신학(이론)과 윤리(실천)의 단절도 좁혀준다.

이러한 볼프의 성서의 신학적 해석은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을 연결

하거나 이것을 하나의 해석 체계로 만드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성서의 진리를 신학화를 통해 오늘의 상황과 삶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신학 내에서의 간학문적 연구의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하기가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 사이에 그동안 있어왔던 “철의 장막”을 제거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Abstract>

**Biblical Studies, Is It Not a Foundation of
Systematic Theology Any More?: M. Volf's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Prof. Dongsoo Kim
(Pyeongtaek University)

This paper starts from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not normal for biblical scholars to have little conversation with (systematic) theologians and vice versa. This is a comparatively recent phenomenon for last 200 years in entire Christian history. Until that time, theologians were the interpreters of the Scripture; exegetes were theologians. Then W. Gabler distinguished biblical theology from dogmatic theology in late 18th century. This resulted in both systematic theology with having nothing to do with biblical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of having no interest in theology. As a result there was “iron curtain” between them. It was a problem. That led to bear both biblical theologians with advocating biblical theology and theologians based on the Scripture.

M. Volf is prominent among such systematic theologians,

in that he has done his theology based on his principle of theological reading of the Bible more thoroughly than any other scholar of our time. His method is neither simply to collect data from the Bible nor to follow the model of ‘exegesis-biblical theology-systematic theology.’ Instead, he proposed a hermeneutics including all of them. He wants to make biblical truths for the practices for our time. This makes the gap shorten both between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and between theology and ethics. This kind of biblical/theological hermeneutics is a model for one hermeneutics which include biblical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Further, it connects theory into practice.

In short, Volf was, I believe, successful in the interdisciplinary work between biblical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This can make the “iron curtain” posed between them be discarded.